유대감·신뢰감 높여주는 '반려견과 산책하기'

반려견과 함께 하는 산책은 주인과 반려견 간에 유대감을 높이기 좋은 활동이다. 산책으로 반려견과 주인 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사실 반려견과 가까워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산책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바른 산책은 주인의 리더십도 길러 준다. 또 반려견이 주인을 더 신뢰할 수 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반려견은 주인을 더 존중하게 된다.

그렇지만 즐겁게 하려던 산책이 반려견이나 보호자 모두 힘든 시간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목이 심하게 졸리는데도 개가 자꾸만 앞으로 줄을 끌기도 하고, 다른 개나 동물을 보면 다가가거나 도망가려고 하기도 한다. 또. 사람이 다가오면 막 짖기도 하는 등 즐거워야 할 산책 시간이 고통의 시간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한가한 곳만 찾게 된다. 무엇이 문제일까? 'Petzzi' (petzzi.com)가 사례별로 그 해법을 소개했다.

CASE_1

다른 개나 고양이 혹은 아이들을 보면 미친 듯이 짖고 달려들기까지 합니다.

개는 보고 듣고 냄새 맡는 등 감각을 통해 세상을 느낀다. 개가 느끼는 모든 자극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즉 '자극과 개를긍정적으로 이어 주는' 교육을 사회화라고 한다. 이 긍정적인 연계에 실패하면, 개는 세상의 자극들을 적대시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그 결과 도망을 가거나 공격을 하게 된다. 익숙한 집 안을 벗어난 산책은 개에게 새롭고 생소한 자극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드는 시간이다. 그 자극이 좋지 않은 감정과 연결되면, 다음에 그 자극이 다시 나타났을 때 과거의 안 좋았던 기억으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책하러 나갔다가 어떤 아이가 과도한 동작으로 뛰어와 자신을 억세게 만졌다면, 다음부터 비슷한 아이를 만나면 경직된 자세로 뒷걸음을 치고 짖거나 물 확률이 높아진다. 반대로 어떤 새로운 자극이 나타났을 때 좋은 결과가 생긴다면, 앞으로 똑같거나 비슷한 자극이 나타나면 즐겁고 행복한 감정이 생기게 된다. 만약 아이가 올 때마다 좋아하는 트릿을 부드럽게 전달해 준다면, 앞으로는 아이들이 나타나면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할 것이다. 상당히 많은 보호자가 산책하러 나갔다가 다른 개와 만났을 때 친구와 인사하라고 접근을 시켜 준다. 하지만 이 또한 위험할 수 있다.

상대방 개가 예의 없이 다가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한다면 앞으로도 다른 개들을 만나면 짖거나 피할 수 있다. 사회화는 무조건적인 노출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핵심은 '긍정적인 연계' 이다. 따라서 다른 개들을 만났을 때 침착하게 있으면 트릿을 주는 방식으로 조금씩 거리를 좁혀간다면, 개들과도 두려움 없이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만약 이런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다른 보호자가 무턱대고 자신의 반려견을 접근시키려 하면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 차근차근 진행해 온 교육이 순식간에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책 중에 만나는 새로운 개와 의무적으로 인사를 시켜야 하고, 매일 어딘가 새로운 곳으로 산책하러 나가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을 나쁜 보호자라고 자책하지 말자. 좋은 보호자는 내 개의 교육 정도를 파악하고, 언제 어디로 산책하러 나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CASE_2

반려견이 앞에서 줄을 끌고 가면 자신의 서열이 저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산책할 때 개가 줄을 당기면 이를 서열을 거스르는 일로 해석하여 개를 나무라거나 외압을 주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개가 줄을 당기는 것이 나를 무시하고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미국 반려견 트레이너 협회 (APDT, Association of Professional Dog Trainers)는 "서열관계 문제라기 보다는, 개와 인간 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문제" 라고 분석했다.

개는 발가락으로 걷는 동물이다. 반면에, 사람은 발바닥으로 걷는다. 발가락으로 걷는 동물은 발바닥으로 걷는 동물보다 훨씬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개가 사람보다 빨리 앞서는 것은 생물학적인 특성에 가깝다. 개가 줄을 당긴다면 개의 앞에 개를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고, 단지 보호자의 옆에서 느슨한 줄 생태로 걸어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에 개가 내 옆에 있는 것을 즐기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비 강압 교육' 혹은 '긍정 강화 교육' 이라고 한다.

CASE_3

줄을 안 끌고 느슨한 상태로 산책을 하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요?

가장 이상적인 산책을 Loose Leash Walking이라고 하는데, 이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연결된 리쉬(Leash)를 느슨하게 유지하며 걷는 모습을 말한다. 산책하며 가장 먼저 교육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 교육에 성공하면 보호자와 반려견 모두 서로를 당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그로 인한 불편함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나무가 되기' 혹은 '자석 만들기' 라는 방법이 있다.

개가 줄을 당기면 그 자리에 멈춰 서고, 개가 당기는 행동을 멈추면 트릿을 주거나 칭찬을 하고 다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반복되면 줄이 팽팽해질 때마다 개가 스스로 느슨한 줄 상태로 만들게 된다. 더 나아가 개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흥겨운 소리로 칭찬을 하고 트릿을 주면 점차 발걸음 수를 늘려나갈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꾸준히 교육하면 어느 순간 긴 시간 동안 내 옆에 자석처럼 느슨한 줄로 걷고 있는 반려견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개 입장에서는 느슨한 줄로 걸었을 때 좋은 일이 생겼기에 자연스레 옆에서 걷는 행동이 자리 잡히는 것이다.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mplant $1700 → $999
X-Ray Exam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 $350
잇몸치료 $600 → $300
틀니 $1200 → $850

KMC Dental Group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Irvine
Tel: (949)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333-3000
16388 Colima Rd.
Hacienda Heights, CA 91745